

(출처) 이투뉴스

[기사링크](#)

(요약) 다시 추락한 REC...태양광사업자 울상

- REC 가격 3만원대로 추락하고 SMP 50원대로 떨어지며 태양광발전사업자 수익성 ↓
- 고정가격계약 입찰물량이 크게 늘면서 불확실한 현물시장 대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계약시장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가격이 또 다시 3만원대로 추락했다. 최근 전력시장가격(SMP)이 50원대까지 떨어진 데 이어 REC 가격까지 3만원대로 추락하면서 태양광발전사업자 사이에선 태양광사업에 참여해도 수익성이 거의 나지 않는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5일 REC 평균 거래가격은 3만8707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13일 3만8419원까지 추락한 이후 REC 거래가격이 3만원대에서 2거래일 동안 이어지고 있다. REC 가격이 3만원대로 떨어진 것은 작년 11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017년 10월 12만7000원이었던 평균가격과 비교하면 70% 가까이 하락했다.

REC에 이어 SMP도 같이 하락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시름을 부추기고 있다. SMP는 7월까지 70원대를 유지했으나 8월에 60원대로, 9월 들어선 kWh당 50원대까지 떨어졌다. 이번 달 초에는 48원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며, 15일 현재 kWh당 50원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앞서 두 차례 동안 REC가격이 3만원대까지 떨어질 때 SMP는 평균 80원 수준을 유지한 반면 이번에는 50원대까지 떨어져 사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익이 크게 줄어들었다. 15일 기준 태양광사업자들이 1kWh당 받을 수 있는 수익은 88957원으로 90원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월	REC평균가	SMP평균가	합계
1월	4만3408	84.26	127.668
2월	4만1313	81.6	122.913
3월	4만2574	83.05	125.624
4월	4만4409	74.78	119.189
5월	4만4499	70.45	114.949
6월	4만4290	70.58	114.870
7월	4만4581	70.96	115.541
8월	4만6251	62.33	108.581
9월	4만5748	55.43	101.178
10월15일	3만8707	50.25	88.957

태양광발전업계는 이번 REC 거래가격 하락에 이어 SMP까지 최근 크게 떨어지면서 수익은 고사하고 원가회수도 불

가능해지고 있다는 걱정을 내놓고 있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현재 REC와 SMP로는 kWh당 수익이 100원도 나오지 않아 원가회수도 요원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SMP가 떨어지면 REC가격이 오르고 SMP가 올라가면 REC가 내려야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장이 불확실해지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SMP와 REC의 동반하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SMP가 국제유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태양광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의 어려움도 동반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SMP가 변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원유수요가 급감하면서 국제유가 하락세가 SMP에도 큰 영향을 줬다”며 “SMP 하락은 태양광산업만의 문제가 아닌 산업 전체가 연결되는 복합적인 문제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시장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물량을 대폭 늘리면서 기존 사업자들도 현물시장이 아닌 계약시장에 참여하는 등 활로를 찾고 있는 것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현물시장을 정상화하고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입찰 물량을 늘리고 중소규모 발전사에게 유리하게 선정비율을 조정하면서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다”며 **“고정가격계약 입찰물량이 크게 늘면서 상당수 중소사업자가 시장이 불확실한 현물시장 대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계약시장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이투데이

기사링크

(요약) LPG선박 상용화 박차...신산업 육성으로 세계시장 선점

- 부산시, 해양모빌리티 특구로 지정되어 LPG선박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의지
- 총사업비 2년간 국비 85억, 시 예산 36억, 민간투자 24억 등 모두 146억원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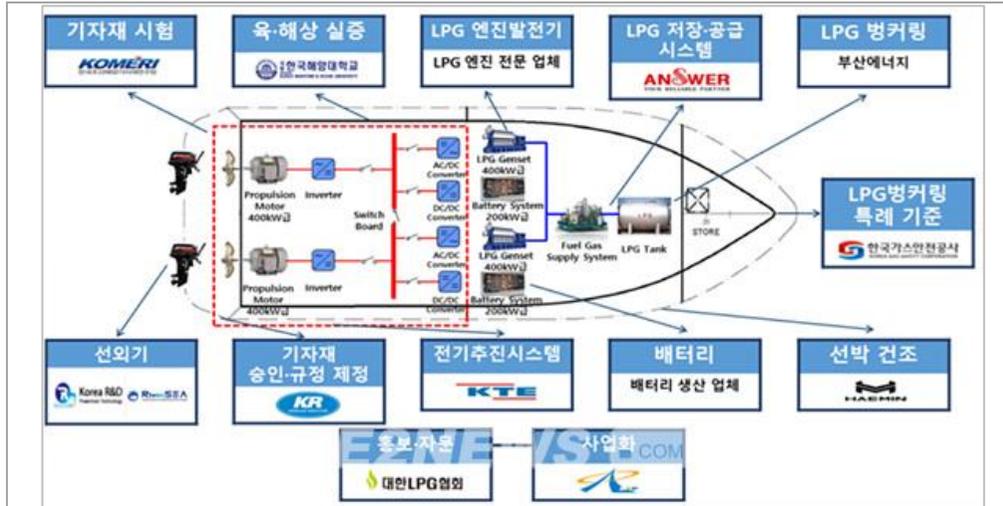
가정용산업용수송용 연료로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선박 연료로는 낯 설은 LPG를 선박에 적용하는 LPG선박 상용화가 한층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경제성이 높고, 미세먼지 저감 등 해양 환경 효과가 큰 LPG선박 관련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시켜 국내 선박시장에서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국제적으로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아직 초기단계인 LPG선박의 세계시장을 선점하

겠다는 의지다.

조선해운 전문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LPG 해상 수송량은 2019년 1억300만톤을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1억1700만톤으로 13%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40척 이상의 초대형 LPG선박이 발주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LPG선박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지역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지역혁신성장 신산업 창출육성을 위해 핵심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 3차 신규지정에서 지역 특화산업 및 지역 인프라 연계형으로 **해양모빌리티 특구로 지정된 부산시가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소형급 LPG선박 상용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기대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와 부산테크노파크(원장 최종열)는 16일 백스코에서 조선산업과 관련한 업계, 전문가, 학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부산의 미래를 견인한다'라는 주제로 부산의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불황 탈출과 신성장동력 산업 확보를 위한 대안과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범 해민중공업 연구소장이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추진방안을 발표하는데 이어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기술 개발, 선박용 LPG선외기 기술개발, 선박으로의 LPG공급기술 개발, 부산 해양모빌리티산업 활성화 방안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부산시는 LPG선박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해 안전성을 검증함으로써 LPG추진선박 건조기준을 마련해 신산업으로 육성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부산 영도구, 강서구와 광안리에서 대대포 해상의 5264km²를 차지하는 해양모빌리티 특구는 선박의 LPG추진시스템 상용화를 추진한다. 중형 선박의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을 건조하고, 소형 선박용 LPG선외기 전환 실증에 나서 육상(탱크리)에서 해상(실증선박)으로 LPG를 충전하기 위한 안전성을 검증하게 된다.

사업자는 해민중공업, KTE, 엔씨, 리벤씨, 한국알앤디, 부산에너지 등 민간기업 6곳과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선급, 부산테크노파크 등 법인 3곳에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포함해 모두 10곳이다. 이들 특구사업자 외 대한LPG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2개 기관이 참여한다. **총사업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국비 85억200만원에 시 예산 36억5000만원, 민간투자 24억4000만원 등 모두 146억1000만원이 투입된다.**

LPG선박 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도 진행돼 프로젝트에 속도가 붙는다. 현재 중형급 선박에 LPG를 연료로 하는 엔진을 탑재해 운항하기 위한 건조 및 안전기준 등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해양수산부 고시 '가스연료 추진선박 기준'은 LNG(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선박용 가솔린(디젤) 선외기를 LPG선외기로 전환·개조해 운항하기 위한 안전기준이나 육상의 탱크리에서 해상의 중소형 실증선박 내에 고정된 탱크·용기로 LPG를 충전하기 위한 법적근거도 부재하다.

이에 따라 중형급 선박에 LPG엔진을 탑재해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와 기존 가솔린(디젤) 선외기를 LPG선외기로 전환·개조해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육상의 탱크리에서 해상에 고정된 LPG탱크·용기로 LPG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가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선박시장의 친환경에너지 정책 부응 및 국내 해양환경 오염감소에 기여하고, 실증결과와 트랙 레코드를 확보해 국내외 LPG선박 기준 제정의 기초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해양모빌리티 특구로 지정된대 따른 로드맵 추진은 물론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과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마련해 해당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 10. 20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01950341>

(요약) 신성이엔지, 김제에 태양광 모듈 공장...연산 1GW급으로

- 지난 4월부터 김제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을 임차해 사업장 개소 준비
- 태양전지 사이즈 대형화하는 것에 대비해 연간 생산능력을 700MW 규모로 조성

신성이엔지가 전북 김제에 새로운 태양광 모듈 제조공장을 열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김제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을 임차해 김제사업장 개소 준비**를 시작했다. 8월부터 생산시설을 반입하고 생산 환경을 조성했다. 올해 안에 안정적인 양산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김제사업장은 **태양전지 사이즈가 대형화하는 것에 대비해 연간 생산능력을 700 MW 규모로 조성**한다. 신성이엔지는 김제사업장을 포함해 전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 1GW 급으로 확대했다.

2020. 10. 20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서울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de/081/0003132586?sid=101>

(요약) "기업 생존에 필수"...ESG에 꽃힌 재계

- 재계에 따르면 ESG 분야의 대표주자는 SK, 최근 새만금에서 민간 최대 규모로 수상태양광사업 추진
- 기업들이 착해서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외면해서는 기업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재계 ESG 관련 주요 사업들 (자료: 각 사)

재계가 '착한' 경영에 폭 빠졌다. 이른바 환경(Environment),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지배구조(Governance)를 중심으로 하는 'ESG 경영'을 강조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ESG 분야의 대표주자는 SK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답체인지' 경영 철학에 따라 관련 사업들을 직접 챙기면서까지 ESG를 강조하고 있다. SK그룹 친환경 에너지 계열사 SK E&S는 최근 전북 새만금에서 민간 최대 규모로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SK건설,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등 친환경 에너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계열사도 관련 가치를 창출해 내기 위한 사업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석유를 정제하는 것으로 이익을 내왔던 정유사들에는 민감한 주제다. 에쓰오일은 이날 스타트업 '글로벌엔텍'에 투자해 탄소배출권 1만 3000t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개발도상국 주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정수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곳이다. 화학사인 롯데케미칼이 중소기업에 친환경 부표 개발 지원에 나선 것과 최근 포스코그룹이 ESG 성과를 담아 내놓은 '기업시민보고서'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들이 마냥 '착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가치를 외면해서는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최근 공개된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조지 세라핌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흑자 기업 1694곳 중 약 252곳(15%)은 환경 비용을 반영하면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인 활동에서는 흑자를 냈지만, 여기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를 예방하거나 복원하는 데 들여야 하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적자라는 것이다. 주로 항공사, 전력설비, 건설자재 등의 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국제 회계 기준에 환경비용을 넣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재무제표에 못 박자는 주장이 나오고 관련 연구가 한창인 가운데 ESG를 신경 쓰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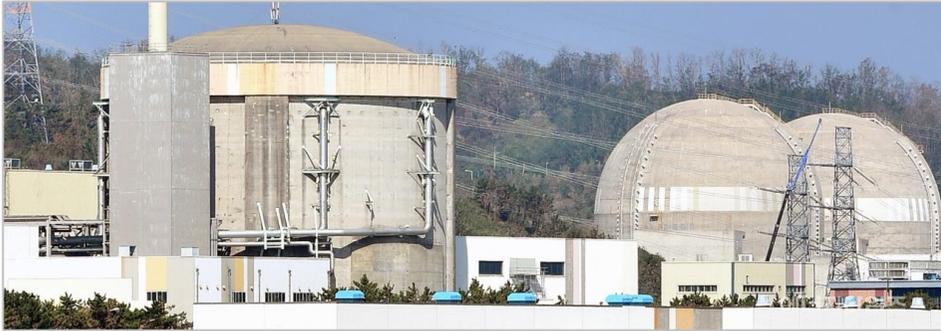
SK그룹	경제·사회 가치 동시 추구하는 '더블보러인' 경영 SK E&S, 새만금에서 수상태양광 사업
포스코그룹	SK건설, 환경플랫폼 EMC 홀딩스 인수 ESG 성과 담은 '기업시민보고서' 발간
에쓰오일	개도국 주민 식수 공급 스타트업 '글로벌엔텍' 투자
KB금융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 중단
롯데케미칼	친환경 제품 개발, 플라스틱 선순환 체계 조성

(출처) 에너지타임즈

[기사링크](#)

(요약) 월성원전 #1 조기폐쇄...감사원 수익성 저평가 결론 내려

- 감사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관련 13개월 만에 수익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결론 내려
- 월성원전 1호기, 고리원전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영구정지 원전이자 설계수명이 남은 첫 번째 영구정지 원전



감사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관련 13개월 만에 수익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0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에 대해 경제성 평가 위주로 감사를 진행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 결정은 안전성·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 결정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서 판매단가를 낮게 적용하는 등 수익성을 저평가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에 의거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과 이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지난 19일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감사보고서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 15일 월성원전 1호기 계속가동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뒤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수명연장보다 조기폐쇄가 이익이란 삼덕회계법인 영역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사원은 삼덕회계법인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월성원전 1호기 계속가동 시 수익성 산출지표인 이용률과 판매단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를 감사할 결과 경제성 평가에 적용된 이용률 60%는 강화된 규제환경으로 전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추정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에 적용된 2017년 한수원 전망단가인 kWh당 55.08원은 같은 해 실제 판매단가인 60.76원보다 9.3% 낮아 계속가동 시 판매수익이 낮게 산출됐다고 지적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관련 일지

1983년 4월	월성1호기 상업운전 개시
2009년 4~7월	한국수력원자력, 노후 설비 전면 개보수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 만료로 가동 중단
2015년 2월	원안위, 2022년 11월까지 연장운전 허가
5월	시민단체,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제기
6월	한수원, 운전 재개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
6월19일	文대통령,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방침 언급
2018년 6월15일	한수원 이사회, 조기폐쇄 결정
2019년 9월30일	국회, 감사원에 한수원 감사 요구
12월24일	원안위, 영구정지 의결
12월26일	감사원, 국회에 감사기간 연장 요청
2020년 4월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의결 보류
4월20일	최재형 감사원장, 담당국장 교체
5월29일	서울고등법원, 수명연장 소송 2심 각하
10월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심의
10월19일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의결

그러면서 감사원은 연도별 한수원 전망단가를 산정한 결과 실제 판매단가보다 대체로 낮게 예측되는 경향을 보였 다면서 한수원 전망단가를 상향조정해 경제성 평가에 사용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한수원이 월성원전 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라 감소되는 월성원자력본부 등의 인건비와 수선비 등을 적정치보다 과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 다고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한수원이 원전 계동가동 관련 경제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제도적 보완 을 요구했다.

특히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에게 백운규 前장관의 비위행 위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배로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나 2018년 9월 퇴직한 만큼 앞으로 재취업·포상 등을 위한 인 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 계속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 가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한 수원 사장에게 엄중한 주의를 요구하도록 했고, 월성원전 1

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한수원은 원칙적으로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한수원 측은 원전 계속운전 관련 경제성 평가 지침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관계부처와 협의·검토를 통해 성실한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월성원전 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한 후 1983년 4월 22일 준공됐으며,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 명이 다했으나 2022년 11월 20일까지 10년 연장운전을 승인받아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한 바 있다.

다만 한수원은 지난해 6월 이사회를 열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기로 결정하는데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회의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골자로 한 '월성원전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하면서 월성원전 1호기는 고리원전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영구정지 원전이 됐고 설계수명이 남은 첫 번째 영구 정지 원전이 됐다.

2020. 10. 21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이투뉴스

[기사링크](#)

(요약) 국내 최초 태양광 온실가스 감축사업 승인

-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추진한 '사회복지시설 햇빛행복발전소 설치 사업,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중 국내 최초로 프로그램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승인
-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추진한 프로그램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정부, 지자체 또는 기업 등이 정책 사업을 프로그램으로 등록해 28년간 제한 없이 단위사업을 추가 등록 가능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가 에너지복지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회복지시설 햇빛행복발전소 설치 사업'이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중 국내 최초로 프로그램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승인됐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햇빛발전소 건설 지원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복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도 동참하는 서울형 에너지복지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서울에너지공사 프로그램 온실가스 감축사업에는 9.75kW 용량의 강동구 암사재활원 감축사업이 단위사업으로 첫 등록됐다. 공사는 암사재활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올해까지 18개소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한 324kW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감축사업 등록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들 사업을 모두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경우 연간 200톤 상당의 배출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를 배출권 거래비용(한국거래소 10월 기준, 톤당 3만3000원)으로 환산하면 연간 660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외부 감축사업 등록을 더욱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에도 앞장 선다는 계획이다.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은 외부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해 배출권을 인증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추진한 프로그램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정부, 지자체 또는 기업 등이 정책 사업을 프로그램으로 등록해 28년간 제한 없이 단위사업을 추가 등록할 수 있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은 적은 양이지만 태양광발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보여 준 것"이라며 "시민들의 참여와 노력이 모인다면 서울시 에너지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87847?sid=001>

(요약) 그린뉴딜에서 찾는 투자 기회...숨겨진 수혜주도 '주목'

-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는 25년까지 총 350조원 이상의 정부·민간 자금이 투입될 예정.
-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2개의 축으로 구성.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은 투자자 입장에서 더 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관련 산업으로의 낙수효과와 이익 증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한축인 그린뉴딜은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와 맞물린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린뉴딜 관련 기업에 관심을 뒤야하는 이유다.

증권가도 앞다퉈 그린뉴딜 수혜업종에 대한 분석을 내놓는다. 현대차나 LG화학 등 기존에 잘 알려진 대기업부터 전방산업 밸류체인(가치사슬)에 얽여있는 중소기업까지 다양하다.

물론 옥석을 가리는 일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린뉴딜이 단기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 프로젝트란 점에서 밸류체인 전반에 관심을 두고 숨겨진 수혜주를 찾는 노력 역시 게을리 해선 안된다. 정책 자금과 시장 유동성이 꾸준히 유입된다면 그린뉴딜 내 순환매 장세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는 2025년까지 총 350조원 이상의 정부·민간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의 주요 추진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160조원을 비롯해 △뉴딜펀드 20조원 △정책금융기관 대출 및 특별보증 100조원 △주요 금융지주 금융지원 70조원 등이다.

약 100년 전 미국 경제를 살렸던 뉴딜 정책을 '한국판 뉴딜'로 다시 고집어낸 것은 그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미국은 과거 뉴딜 정책으로 경제뿐 아니라 증시도 살아난 경험이 있다.

미국의 거시경제연구소 '매크로파이낸스 앤 매크로히스토리랩'에 따르면 1930년대 대공황으로 70% 이상 폭락했던 미국 증시는 뉴딜 정책이 본격 추진된 1933~1936년 동안 연평균 16% 가장 상승세를 보였다. 경제가 살아나고 돈이 돌기 시작하자 경색된 자본시장도 활기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그린뉴딜 관련 주요 밸류체인 업체

정부과제	세부사업	관련 종목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 건축자재	LG하우시스, KCC, 하츠, 벽산
	태양광	한화솔루션, OCI, 레이크머티리얼즈, 현대에너지솔루션, 에스에너지
	LED조명	서울반도체, 금호전기
그린 산업	전선 지중화	재룡전기, LS전선, 이엠코리아
	폐기물 처리	코엔텍, 인신이엔티, 와이엔텍
그린 에너지	풍력	씨에스윈드, 동국S&C, DMS
	수소	효성첨단소재, 미코, 이엠코리아
그린 모빌리티	전기차 부품	한은시스템, 우리산업, 세종공업, 예코프루비엔, 두산솔루스, 후성, 천보

*자료: 각 증권사

한국판 뉴딜에서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기회는 충분히 있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2개 축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린뉴딜은 기존 산업을 저탄소·친환경 산업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 중 그린뉴딜은 전세계적인 탄소배출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이전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됐다. 한국판 뉴딜 160조원 중에서도 그린뉴딜 집행 계획이 73조4000억원으로 디지털 뉴딜(58조2000억원)보다 비중이 높다.

그린뉴딜의 세부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 그린뉴딜의 주요 사업으로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추진된다. 디지털 뉴딜과 융합한 사업은 △그린 스마트 스퀘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등이다.

그린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단열성능 강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으로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하는 것이다. 그린 리모델링에는 2025년까지 약 5조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린 리모델링의 핵심은 고성능 단열재 교체와 태양광 설치인 만큼 관련 기업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친환경 건축자재 업체 중에서 증권사들이 주목하는 기업은 LG하우시스, KCC, 하츠, 벽산 등이다. LG하우시스는 에너지 절감형 PVC(폴리염화비닐) 창호와 각종 친환경 건축 자재를 판매한다.

KCC 역시 불에 잘 타지 않는(불연) 소재의 단열재와 친환경 소재 판매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츠는 환기청정기 제품, 벽산은 친환경 페인트 등이 뉴딜의 수혜 포인트다.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조명인 LED(발광 다이오드)조명 업체들도 그린뉴딜 수혜주로 꼽힌다. 서울반도체와 금호전기 등이 있다.

태양광 에너지는 건축물 내에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그린 리모델링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태양광 수요도 그만큼 늘어난다.

국내 주요 태양광 관련 기업으로는 한화솔루션과 OCI가 꼽힌다. 이외에도 신성이엔지, 레이크머티리얼즈, 에스에너지 등이 태양광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밸류체인으로 얽여있어 주목할 만하다는 분석이다.

스마트 그린 산업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낙인이 찍혀있는 산업단지를 친환경 설비와 IT(정보기술) 인프라 등을 통해 고효율저오염 단지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그린 산업 사업에는 약 4조원의 정부·민간 자금이 투입될 계획이다.

그린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폐기물 처리 업체다. 산업단지를 친환경으로 만들려면 무엇보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오염물질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상장사 중에서는 코엔텍, 인선이엔티, 와이엔텍 등이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주자다. 코엔텍은 울산·영남권을 기반으로 폐기물을 매립·소각 처리하는 기업이다. 고수익성(올해 예상 순이익률 32.7%)과 5%대의 배당수익률 등이 투자 포인트다.

인선이엔티는 건설폐기물을 주로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단가 상승으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173% 급등했다. 지속적인 사업 확장으로 당분간 실적 고성장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산업용 폐기물 처리업체인 와이엔텍 역시 환경사업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그린뉴딜에서도 친환경 에너지는 가장 기본이다. 수소 에너지의 연구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풍력은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전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효성첨단소재, 한화솔루션, 두산퓨얼셀 등이 수소 관련 기업으로 유명하다. 밸류체인 중에서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미코 △현대차에 수소 탱크를 공급하는 일진다이아 △자회사를 통해 수소스테이션, 수소발생기 사업을 하는 이엠코리아 △수소차용 수소제어밸브를 생산하는 세종공업 등을 주목할 만 하다.

정부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이후 관련 수혜주로 거론됐던 종목들은 대부분 한번씩 주가 급등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슈가 잠잠해지고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일부 종목들은 조정을 겪기도 한다. 특히 밸류체인인 2~3차 밴더들은 기업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시장 변동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린뉴딜 수혜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장기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KB 증권 리서치센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구체적인 장기계획이 수립된 만큼 이슈에 따른 단기 투자가 아닌 보다 긴 시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 10. 22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이데일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765408?sid=001>

(요약) 테슬라 ‘어닝 서프라이즈’...5분기 연속 흑자행진

- 올해 3분기 87억 7000만달러(약 9조 940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여 사상최대치.

- 올해 전체적으로 50만대를 생산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 중국 상하이 생산공장 등의 생산호조 반영

미국의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시장 예상 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내놓았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CNBC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3분기 87억7000만달러(약 9조940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치다.**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시장의 실적 추정치(83억6000만달러)를 웃돌았다.



테슬라는 또 3분기 3억3100만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5분기 연속 흑자 행진이다. 주당순이익은 76센트로 시장 전망치(57센트)를 넘어섰다.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 3분기 실적이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상회했다”고 했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정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 0.17% 오른 주당 422.64달러를 기록했다. 장 마감 직후 실적이 나오자 시간외거래에서 440달러 안팎까지 치솟았다.

테슬라는 올해 전체적으로 50만대를 생산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중국 상하이 생산공장 등의 생산 호조를 반영한 결과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에는 독일 베를린과 미국 오스틴에서 자동차 납품을 시작할 것”이라며 “처음에는 속도가 느리겠지만 점차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2020. 10. 23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투데이에너지

[기사링크](#)

(요약) 한수원, 청송에 19.2MW 규모 풍력단지 준공

- 한수원, 청송양수발전소 인근에 19MW 풍력단지 건설 완료 → 총 사업비 540억원 투자
- 청송양수발전소 하부저수지에 44MW급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로 → 국내 최초 발전용댐 수상태양광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청송양수발전소 인근 청송 노래산 자락에 19.2MW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완료하고 발전소 현장에서 21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송노래산풍력단지는 6만6,000㎡ 부지에 총 사업비 약 541억원을 투입해 2018년 10월 착공, 올 9월 준공됐다. 총 19.2MW 규모로 연간 3만7,000M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이는 청송군 전체 1만4,000여 가구의 약 115%에 해당하는 1만6,000여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청송노래산풍력단지는 지난 2014년 한수원 자체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풍황조사를 실시한 후 풍력 전문기업인 대명에너지(주)와 출자사업 방식으로 공동개발협약(DA)을 체결하고 약 5년에 걸쳐 인허가 절차와 설치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발전기 6기 설치를 완료하고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같은 날 한수원은 **청송양수발전소 하부저수지에 44MW급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고 발전소 인근에서 기공식을 열었다.** 기공식에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윤경희 청송군수, 서정표 한화솔루션 전무 등이 참석했다. **오는 2021년 3월 준공예정인 청송양수 수상태양광발전소는 국내 최초로 발전용댐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시설이다. 저수지 면적 중 약 5.7%에 해당하는 2만9,000여㎡에 태양광모듈을 설치해 연간 5,560MWh의 전력을 생산하며** 이는 청송군 관내 2,800여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이 발전소는 지난달 강화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침 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시설로 지침에 따라 친환경·고내구성 수상용 태양광모듈을 적용해 고온·고습한 수상환경에서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전망대, 포토존, 야간조명 등을 설치해 지역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청송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세계적인 종합에너지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수원은 오는 2030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해 태양광·풍력 위주의 신규 신재생설비 7.6GW를 확보할 계획이다.

2020. 10. 23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투데이에너지

[기사링크](#)

(요약) "전국 ESS 가동중단 20% 육박"

- 전국 ESS 2,373개 사업장 중 18%가 가동 중단상태...총 537.7MWh이 폐쇄
- 공공기관의 ESS설치는 화재로 인한 안전기준 제정과 예산부족으로 인해 기존에 설치계획 대비 20%에 불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상섭 의원은 22일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설치한 에너지저장장치(ESS) 2,373개 사업장 중 436곳(18.4%)에서 가동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용도별로 중단 현황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연계에서 태양광 28곳(23.1MWh), 풍력 2곳(15MWh)으로 총 30곳(24.6MWh)이 문을 닫았고 피크저감 373곳(406.6MWh), 비상발전등 33곳(131.1MWh)등 406곳(537.7MWh)이 폐쇄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까지 1,000kW 이상의 계약전력을 사용하는 254개 공공기관이 ESS 설치 의무대상이었으나 화재로 인한 설치중단, 소방청고시'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각 공공기관의 예산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해 기존건축물의 설치무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했다. 현재 공공기관 ESS설치는 52곳(20.5%)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4년간 발생한 화재사고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ESS운영 전반에 침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ESS화재는 2017년 1건, 2018년 16건, 2019년 11건, 2020년 1건으로 총 29건 발생했다.

이상섭 의원은 "ESS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ESS를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화재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